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24~4/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내려놓기)	법륜 지음	정토	6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7	안반수의경(선전총서7)	안세고 한역/석법성	운주사
3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8	요가수행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5) 완전함 내면의 평화해탈의 길	아행가, 존J.에반스, 더글라스 에이브람스	선요가
4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9	대념처경과 위빳사나 명상:이와같이 나는 대념처경을 읽었다	정순일 역해	운주사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책세상

들뢰즈 철학으로 사유한 '무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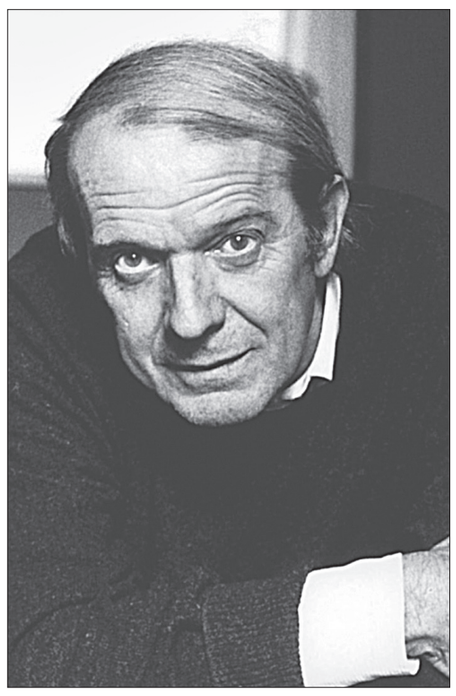


무문관을 사색하다
박인성 지음
그린비/ 2만6000원

박인성 명예교수, '무문관' 공안들
들뢰즈 '차이의 철학' 통해 사유해
선불교 역설의 언어, 철학어로 해석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무문 혜개 선사를 판화로 표현한 작품(사진 왼쪽)과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모습(사진 오른쪽)

남송 시대 선승 무문 혜개(無門 慧開, 1183~1260) 선사가 지은 〈무문관〉은 〈종용록〉 〈벽암록〉과 함께 3대 공안집으로 불린다. 〈무문관〉은 총 48칙(則)의 공안과 함께, 평론해 길게 해설해 놓은 평창(評唱)과 간단하게 외우도록 시조 형식으로 풀이한 송(頌)으로 구성됐다.

박인성 동국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무문관을 사색하다〉는 〈무문관〉의 본칙·평창·송을 해독·해석한 책이다. 무문관은 공안집의 이름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영화, 수행처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저간에는 〈무문관〉 제1칙 '조주구자' 공안의 '무(無)'가 맴돌고 있다. 소위 '무자 화두'는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국가 선자(禪者)들이 가장 많이 드는 화두이다. 무문 혜개 선사 역시 '무'자 공안을 수년간 참구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무문관〉 48칙 공안은 '1700공안'의 요체를 담고 있고 있으면서도 '무'자 공안으로 귀결되고 있다. 〈무문관을 사색하다〉는 '무'자 공안을 위시한 〈무무관〉의 본칙들의 위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를 사유·탐구한다.

아비달마, 중관, 유식, 인명 등 인도불교를 오래 연구해 온 저자는 중국 선불교 공안집 〈무문관〉에 이끌린 이유에 대해 "모든 공안집의 공안(화두)이 담고 있는, '차이의 언어'인 활구(活句)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의 불교가 차이 그 자체를 지향해 왔지만, 일상어에서 차이 그 자체를 추구하고 발견한 불교는 선불교가 유일하다"면서 "선불교의 언어들은 일상어의 사구와 활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활구는 역설의 언어, 차이의 언어"임을 분명히 했다.

박인성 명예교수는 저작에서 〈무문관〉의 본칙·평창·송을 오늘날의 일상어와 철학어로 해독하고 해석해낸다. 해독·해석의 근간에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 Deleuze, 1925~1995)의 철학이 있다. 들뢰즈의 철학을 '차이의 철학'이라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들뢰즈는 붓다가 이미 2500여 년 전 자신의 전 사상 체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한 '차이의 개념'을 훌륭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박인성 명예교수는 "들뢰즈 등의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사유가 동일성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해방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니체와 하이데거 이후, 차이를 거론하는 철학자는 데리다 등 여러 철학자가 있었지만, 차이를 가장 잘 전개하고 완성한 학자는 들뢰즈"라고 평했다.

저자는 〈무문관〉의 공안들을 해독하고 해석하면서 들뢰즈의 여러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무-의미(non-sense)'다. 이는 들뢰즈의 저서 〈의미의 논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다. 언급되는 '무-의미'를 일상에서 쓰는 '무의미'로 여겨서는 안 된다. '무-의미'는 의미를 결여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를 생성하게 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선불교의 활구(活句)는 무-의미의 활구와 의미의 활구, 이렇게 둘로 나뉜다. 〈무문관〉의 공안들은 곧바로 무-의미로 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를 거쳐 가는 때도 종종 있다. 이 의미(sense) 역시 활구이다. 들뢰즈의 '의미'는 의미·사건으로 표현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순수생성(pure becoming)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저자도 밝히고 있지만 들뢰즈 철학 용어를 숙지한다고 하여 〈무문관〉의 공안이 모두 해독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공안을 있는 그대로 해독해 가는 과정에서 들뢰즈의 용어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렇기에 공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듣고, 분별을 해체하며 무분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톺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두를 잡고 풀어 가는 과정은 올바른 사유(正見)를 얻는 과정이다. 〈무문관을 사색하다〉는 학자가 사유로 천착해 이룬 정견의 결과물이다.

부처의 무량 자비심, 만다라로 만나다



태장만다라
법현 스님 글·그림
운주사/ 10만원

만다라(Maṇḍala)는 어원상으로 보면 '본질을 갖추는 것' 또는 '제법(諸法)을 구족(具足)하는 것'으로, 이는 부처님의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즉 '가장 높은 깨달음'의 본질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만다라는 밀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내면세계 혹은 부처의 법신(法身)인 진리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수행 방편으로, 특히 티베트와 일본, 중국에서 크게 성행했으며, 우리나라도 후불탱화로 전해져 오고 있다.

밀교의 대표적 경전은 〈대일경〉과 〈금강정경〉인데, 태장만다라(胎藏曼荼羅)는 〈대일경〉을 근거로 하고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을 근거로 한다. 이 둘을 양부만다라 혹은 양계만다라라고 하며, 태장만다라는 이(理)의 세계를 금강계만다라의 지(智)의 세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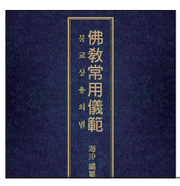
태장만다라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을 중심으로 12대원이 순차적으로 중심에서 사방팔방의 바깥쪽으로 퍼져 나가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일경〉에서 설하는 이론에 따른 것이다. 대일여래는 근본불(法身)로서, 태양의 빛과 같은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대자비가 무량하게 펼쳐지는 것을 나타내며, 중생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태장(胎藏)이란 태아가 모태(母胎) 안에서 갈무리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모성(母性) 원리를 발상으로 해서,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갈무리하여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도상화한 것이 태장만다라이다. 모태에는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듯이, 부처의 중생에 대한 무량, 무한한 자비심을 모태에 비유한 것이다.

안산 법륜사에 주석하면서 실담자 사경 지도를 하고 있는 실담 법현 스님이 지은 〈태장만다라〉는 '태장만다라'에 등장하는 412분 존상(尊像, 불보살·명왕·천왕·천신 28수·축생·아귀·중생)을 직접 그려 모시고 각 존상마다 진언(眞言, mantra), 밀호(密號), 지물(持物), 수인(手印), 종자(種字) 등을 부여하여 해석을 달았다. 이를 통해 중생들이 근기(根器)에 맞게 수행하여 깨달음으로 가도록 엮었다.

신중일 기자

예불부터 재까지… 사찰 의식 총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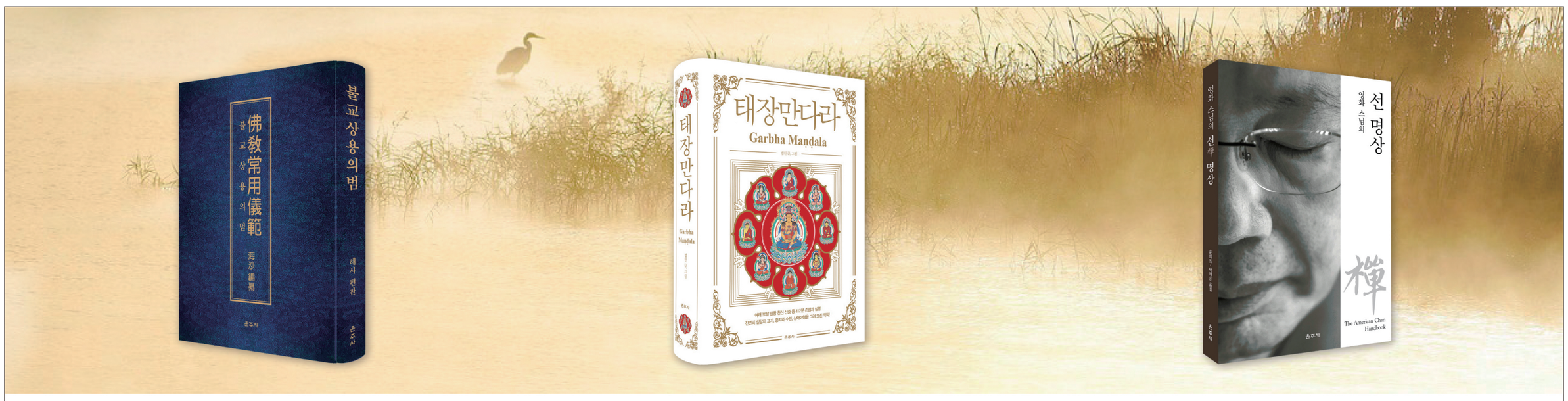
불교상용의범
해사 스님 편찬
운주사/ 5만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해사 스님이 편찬한 〈불교상용의범〉은 사찰 일상 의식부터 재 의식까지를 총망라한 의식집이다.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상용의범을 중심으로 하되, 전래되는 각종 의식문들을 참조해 수정·보완했다.

책은 크게 △일상의례 △제반의식 △상주권공재 △청문(각단불공) △시식 및 영반 △부록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일상의례는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거행하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을 수록했고, 제반의식은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의식문을 수록했으며, 상주권공재도 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청문에서는 미타청부터 가람청까지 각단의 불공의식문을 수록했고, 이후 화엄시식을 비롯한 각종 시식과 영반을 담았다. 부록편에서는 석탄일, 성도일, 열반일, 백중 등 불가에서 중요한 날들에 행하는 사명일대령과 시식, 설법의식, 방생의궤 등을 수록했다.

〈불교상용의범〉은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는 오백나한청문을 복원해 오백나한을 모신 도량에서 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청문(각단불공)과 시식문 중 누락된 부분이나 필요한 내용을 복원·증보하는 등 현재 의식 중 보완할 부분을 새로 수정한 것도 특징이다. 신중일 기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대일경』에 근거한 태장만다라의 412분 존상을 재현!
태장만다라
중대팔엽원부터 외금강부원까지 12부원을 도상화하고, 412분 존상에 대해 의미와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진언과 실담 범자, 종자, 수인, 삼매야형 등을 부여.
법헌 글 · 그림/사륙배판/양장/688쪽/값 100,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